창간 1주년 맞은 현대불교의 다짐

약속을 지키는 신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신문」이 되자고 다짐했던 1년 전의 출발을 되돌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애독자를 향해 겸허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다.

인간사 어디서나 그러하듯이 출발이란 희망과 각오와 다짐으로 장식된다. 현대불교신문의 탄생 순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꼭 1년 전,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고 나아가 세계가 불법으로 감화되는 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또한 2천만 불자의 대변지로서 불법홍포의 최정예가 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애독자 제현에게 몇가지 약속의 말씀도 드렸었다. 첫째는 전지면을 신행·포교 중심으로 제작한다는 것, 둘째는 불교정보센터를 개설한다는 것, 셋째는 불교영자지 발간과 영상포교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희망은 이상주의자의 꿈 같은 것일수 있고, 우리의 각오는 막대한 투입이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약속은 1년 간의 짧은 세월로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1년, 더 좋은 신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를 써 왔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미흡하다. 지면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독자의 욕구를 전폭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2천만 불자의 대변지를 자처하기에는 사업적 기반이 취약할 뿐아니라 경영나용면에서도 교계 언론 공통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솔직히 자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현대불교신문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뜻한 바를 잊지않고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힌 희망과 각오와 약속의 내용이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기필코 우리가 하겠다는게 현대불교 사원 모두의 초발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첫째, 현대불교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좀더 세련되고 심화된 지면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을 것이다. 주 16면 시대를 이끈 현대불교는 신행·포교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지고 나아가 이 시대의 불자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향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그를 위해 독자의 요청이 있다면 증면도 고려할 것이다.

둘째, 불교정보센터를 개설해 세계와 한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

현대불교는 창간 1주년을 기해 이미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 신문기사와 기타 교계 정보는 물론 동화상(動畵像) 서비스가 가능한 「부다피아」를 창설했고 조만간 인터넷 홈 페이지도 개설해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할 준비를 갖추었다.

향후엔 부다피아 정보망을 통해 한국내 불자간의 통신은 물론 세계와 한국 교계를 연결하는 폭넓은 영문 서비스 체제를 갖출 것이다.

이는 창간 당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는 출판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이다.

이 출판사업엔 경전을 현대어로 풀어쓰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며 주로 생활불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제반 도서를 펴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

현대불교의 이같은 약속은 바로 사시(社是)인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현대 인류가 직면한 위기적 상황에 대처해 불교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불자들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히 따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오늘, 현대불교신문은 1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창간시의 거울에 되비쳐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신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한다. 앞으로 1년후 창간 2주년이 되는 날, 우리에겐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애독자 제현의 아낌없는 질정(叱正)을 바라 마지 않는다.

"종교 관계 중립 지키겠다" 81.3%

지자제 100일 본지 불자 지자체 단체장 설문조사

"사찰은 윤리·가치관 정립에 기여 해야" 87.5%

"불자지지로 당선" 50% … "월 1회 절 찾는다" 51%

지방자치시대에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윤리·가치관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창간 1주년을 맞아 8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지자체 불자단체장(67명 중 48명 응답)에게 실시한 설문분석에 따르면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윤리·가치관 정립'(87.5%) 사회복지(6.3%) 환경보호(3%) '경제정의·지역갈등 증재등 기타'(3.2%) 순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인 교화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관할지역에서 각 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62.5%) '다방면으로'(31.3%) '시민운동'(6.2%) 순으로 나타나 종교가 지역주민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줘 앞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불자단체장들은 지난 6.27선거에서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27선거때 불자들이 적극 지지해서 당선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가 그렇다, 50%가 '조금 그렇다'고 응답, 불자당선자 대부분이 불자들의 지지가 당선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자당선자의 관할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교로 불교(62.5%)가 꼽힌 사실로도 입증된다.

선거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크다'가 43.8%, '보통이다'가 56.2%로 나타나 대다수가 종교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종교단체와의 관계구상에 대해서는 '종교를 가리지 않고 호의적으로 하겠다'(50%) '어디서건 중립을 지키겠다'(31.3%) '불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18.7%)순으로 나타나 81.3%가 각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의 사회봉사·구휼활동에 대해서는 75%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12.5%가 '소극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12.5%만이 '현상태가 적절하다'고 응답, 87.5%가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법·종합토지세법등 불교관련법에 대해서는 81.3%가 '잘 모른다', 18.7%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 이에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불교에 입문한 계기로는 '불교집안'(75%) '본인의사'(18.8%) '배우자 따라'(6.2%)로 나타난 반면 '주위의 권유'는 0%로 나타나 불교의 소극적인 포교형태를 보여줬다.

이중 계를 받은 단체장은 18.7%, 받지 않은 단체장은 81.3%로 나타났다. 계를 받지 않은 단체장들은 '기회가 되면 받겠다'(61.5%) '안받아도 상관없다'(38.5%) 등으로 응답, 수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찰(포교당)을 찾는 횟수는 '년 1~2회'(30.3%) '월 1회'(51%) '주 1회'(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찰이나 불자들과의 교류는 '잦은편'(37.5%) 보통(56.3%) '별로 없다'(6.2%) 순으로 응답했다. "개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7.5%가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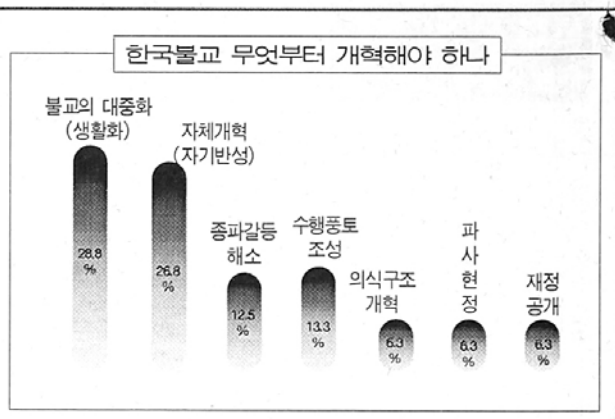
또 한국불교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대하다(50%) 보통이다(43.8%) 미미하다(6.2%) 등으로 밝혀 93.8%가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불교가 우선 개혁해야 할 것으로는 '불교의 대중화(생활화)'(28.8%) '자기반성을 통한 자체개혁'(26.8%) '수행기풍 조성'(13.3%) '종파갈등 해소'(12.5%) '의식구조 개혁'(6.3%) '파사현정(破邪顯正)'(6.3%) '재정공개'(6.3%)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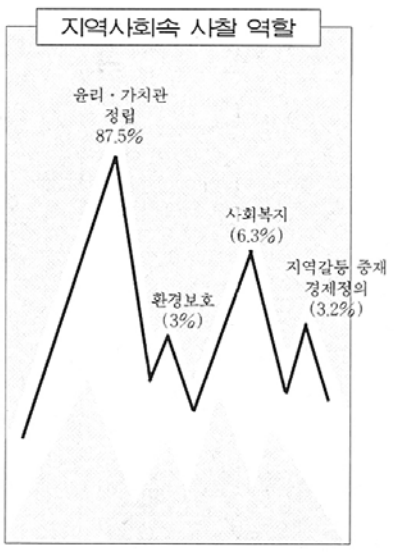
특히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집안의 영향을 받아 입문한 단체장 36명은 '불교의 대중화'(25%) '자체개혁'(25%) '수행기풍 조성'(16.7%) '의식구조 개혁'(8.3%) 등을 개혁의 우선적 과제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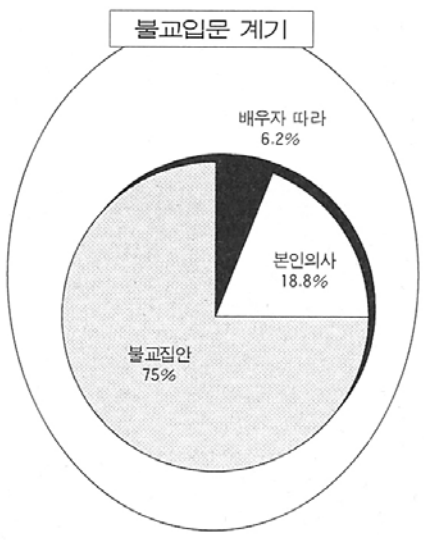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한 '광역·기초 단체장 종교현황'에 따르면 245명의 단체장 중 불교가 28.1%, 기독교 31.2%, 천주교 11%, 유교 0.4%, 무교 2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5명의 광역단체장 중 불교는 6명, 기독교 5명, 천주교 2명, 무교 2명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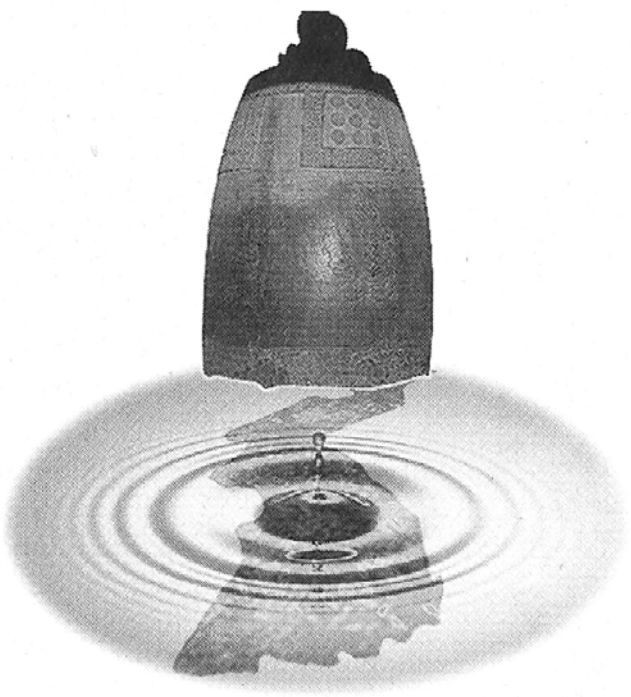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 입문자를 위한 동산불교 기초교육원
불교지성인을 육성하는 동산불교대학
일선법사를 양성하는 동산불교 전문 연구원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TEL:732-1206~8, 722-0408)

*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귀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 불교방송 전국방송망 확장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에 이어 대구와 청주에서도 불교방송이 곧 개국합니다.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이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하에 여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을 기원합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MHz · 부산 FM 89.9MHz · 광주 FM 89.7MHz